

<2013년8월 2일 금요일 진성운 선생님 명강의 요약 말씀 >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절대 대답이 없으실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다른 방법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자기에게 은은하게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육신을 통해서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나에게 심부름시킬 것이 있으면 시키십시오. 나에게 어떤 할 말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그 뜻대로 먼저 사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나머지는 내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바로 그것 속에 자기 인생 길의 일도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속에 자기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회 한다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할 것이 있습니까? 목회만 잘 해보십시오. 수백 명 수천 명 불어나면 먹고살고 생활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그 속에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치우쳐 사는 것을 뒤집어엎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위해 사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된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먼저 근본을 깨달아라. 그것이 순서이다. 육적인 일

을 먼저 하면 절대 안 된다. 영적인 일을 먼저 하도록 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꼭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서가 되어서 잘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사람을 다룰 때에도 항상 말씀을 먼저 듣게 만들고, 신앙의 뿌리가 서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그에게 영광스러운 명예도 주고 주권도 주고, 그리고 벼슬도 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구하라.” 이 속에 어떻게 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게 하도록 하라. 그리고 먼저 신앙의 근본을 깨닫도록 만들어라. 먼저 진리를 전해주도록 하라. 먼저 하나님의 사정을 가르쳐주도록 하라.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온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그러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선생님이 오늘 이 주에 선포한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해 주리라.”입니다.

그런데 육의 일을 먼저 구하고 육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진리의 신앙의 뿌리가 먼저 박혀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더 해 줘야 사고가 안 나는 것입니다. 복을 줘도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그 복을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훈련하라. 그러면 충을 주겠다.”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씻고 닦자. 그리고 밥 먹자.”

“새벽기도 먼저 하자.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리고 나와서 먹고 즐기자.” 이런 말씀이 금주의 말씀으로 진행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한 주일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모든 섬리나라 사람들은 먼저 자각하고 또 반성하며, 자기가 순리대로 못하는 것은 요변주의 말씀을 듣고 꼭 순리대로 순서를 잡고 제 위치로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를 떠났을 때 타락인 것입니다.

“꼭 먼저 할 일을 척척 해가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상당히 귀한 말씀입니다.

선생님도 모든 순서를 보면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있는가 보고, 먼저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전부다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야 됩니다.

산생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세상의 학문 먼저 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접해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내가 의를 행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먼저 배울 것이 무엇인가.’ 하고 신앙에 먼저 들어가 착수해서 배우고 터득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의 사상과 정신을 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펴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초 먼저 하도록 하라. 아무리 급해도 전초 하라.”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할 것을 꼭 먼저 해야 된다. 급하더라도 꼭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하고서 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살 동안뿐만 아니라 일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하도록 하라. 그게 순리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온 세계의 섬리나라가 먼저 할 것을 꼭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반드시 의로운 일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이들 위에 영원하고 영원할 지어다. 아멘.